

SERMON 3rd of January 2016

예레미야 31:7-14, 요한복음 1:1-18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 장 1-3 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 장 1-4 절.

자 새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시간을 나누고 그것에 이름을 붙임으로 우리 인간이야기와 고대의 이야기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서 우리의 로마 달력을 주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태초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TV에서 불꽃놀이 방송을 보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보셨나요? 저희 가족은 저녁 7시 30분쯤 오클랜드에서 시드니에 도착해서 파라마타행 기차를 승차했습니다. 새해를 축하 하러 가는 젊은이들로 가득 찬 기차는 줄줄이 반대방향인 시티로 달렸습니다. 파라마타역에서는 파라마타 공원 불꽃놀이로 완전 교통 체증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9시 30분에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저희 아들 앤드류는 샤워를 마친 후 파티에 갔습니다. 이 시간쯤 저는 2시간 빠른 뉴질랜드시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청했고 주위에서 들리는 불꽃놀이와 23Km 떨어진 시티에서부터 들려오는 쿵 하고 깊게 울리는 불꽃놀이를 들으면서 잠이 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마지막과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고 잠재력으로 가득하게 남은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을 열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하기를 원하는가는 놀랍습니다. 이때가 되면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낙담하고 또는 다시 불안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믿는 듯 합니다. 새해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주위 자연의 세계는 시간의 나눔을 기초로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흔들리는 섬들인 남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을 즐기면서 인간은 지질연대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어느 것도 안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합니다. 심지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바위들, 우리지구의 표면을 형성하는 바로 그 지질구조 판들조차. 우리 주위의 세계는 자연 자체의 사이클인 재생, 생명과 죽음, 예를 들어서 가뭄과 폭풍우들 그리고 화재와 홍수 후의 재성장 같은 환경 안에서 변화된 상황; 계절의 변화 그리고 식물들, 새들, 생물들 반응 안에서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나누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여자 친구가 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계절이 있다. 축구시즌과 축구시즌을 기다리는 시즌! 비록 크리켓 시즌도 포함 시키긴 했습니다 만요.

우리는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두고 갈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가 있고, 새로운 장이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라벨을 선택한 우리는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총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구세주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설명으로 옮기기 전에 서두의 아름다운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오실 예수를 연결합니다. 그는 시간이 시작된 이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의 부분이 되셨는지 또한 예수님은 지금 창조의 관련된 하나님의 활동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지혜 즉 하나님께 세상을 계속적으로 부르는 소피아와 함께 연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는~이다 진술들"을 요한복음서에 7 번 포함합니다. 이 진술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음으로 모세에게 반응한 하나님의 진술 메아리입니다. 그의 탄생이 우리를 회상하게 하는 예수님은 심지어 육신으로 완전한 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회상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는 누가에 의해서 재검토 되므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입술에서 말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질문을 제쳐두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요? 우리는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분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인간의 이야기 안에 휘말리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해서 좀 더 성스러워야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휩싸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것이 제도화된 교회라는 기관이 주는 그런 인상인지 궁금합니다. 교회력의 이 시즌의 많은 메세지들은 영광된 것이 아니라 마구간과 구유안에 있는 기본적인 가공되지 않은 더 인간적이고 더 세상적인 것 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와 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 생명의 말씀에 호흡을 불어넣고 보기 좋게 창조 하셨습니다.

아주 자주 우리가 새해의 시작시간을 맞이 할 때면 올해에는 달라야지 하는 관념에 사로 잡히곤 합니다. 저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새해

결심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 합니다. 새해 결심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몇 일이 지난 후에는 좋은 의도들은 사라지고 실패의 죄책감과 함께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들인지 생각하는 것을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확실히 하신 빛과 사랑의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입니다.

미국 성 프란시스코회 회원 신부인 리차드 로어(Richard Rohr)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로어(Richard Rohr)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잊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문화가 한 덩어리의 최면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몽유병자들과 같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어(Rohr)가 말하기를 기도는 주로 말하는 말들이나 또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한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영성은 결과들을 성취하는 것 또는 요구조건을 만족 하는 것이라기 보다 보기 위한 것 이라고 비유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당신은 강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강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삶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의 삶에 어떻게 "Yes" 라고 말하는지 그저 배우시면 됩니다. 이 삶은 너무 크고 깊고 넓어서 심지어 그것의 반대인,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마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큰 이슈가 있고 이것이 세상곳곳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쟁과 폭력, 가뭄과 화재 그리고 수해로 피난 가고 상처 입은 사람, 여성과 어린이들의 계속되는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미국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하고 안정된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결속에 대한 걱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자신 개인의 근심, 희망 그리고 두려움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것도 큰 이슈들입니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며 충만한 은총과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2016 년의 새로운 페이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가장 중요한 이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가혹한 기준의 일부가 아닌 역동적인 부분으로써 삶을 살도록 불리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불리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연다면 우리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항상 그런 시기는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 스스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타인의 사랑에 의에 힘을 얻고 계속 여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성공 시키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를 사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시는 조지 6 세가 좋아했던 시입니다. 이시는 1939 년에 당시 공주였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버지를 위해 손으로 옮겨 적었던 것이고 조지 6 세는 2 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성탄



연설에 이 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연설 즈음이 무척 암울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해의 문에 서있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손전등을 주세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안전하게 걸어 갈수 있도록”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 어둠 속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손을 내미세요. 그것이 알려진 길의 안전함과, 손전등보다 당신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계속 갔고, 하나님의 손을 찾아 어둠 속으로 기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언덕을 향해서 그리고 외딴 동쪽의 새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